도시 | 6-5.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약속

유형별	재원별	임기구분	목표연도	사업주체	2026년도 목표 달성율	전체 추진율 (누적값)
신규	예산	임기후	2032	수원시	0%	80%

□ 사업목표

○ 영통 소각시설 이전 시민 숙원(시민공론화 결과) 해결을 통한 편익 도모

○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도시환경 기초시설 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8. ~ 2032. 6.(9년 소요→행정절차 5.5+시공 3.5)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시설규모 : **500톤/일**(소각로 2기×250톤/일) / 부지면적 53,300㎡
  ※ 시설설치 시점 생활폐기물 배출량 등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건립(안) : 지상(테마파크), 지하(소각시설 등)
  - (지상) 굴뚝(전망대), 관리동, 주민편익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테마공원 등
  - (지하)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설비 등
- 입지선정 방법 : 희망 지역 공개모집, 전문기관(업체) 사전조사 용역

○ 소요예산 : **3,200억원**(시설비 2,667, 주민편익시설 533)

※ 입지선정 관련 사전조사 용역비(1.57억원)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2026.3.31. 기준)

	소요예산 (a~c 합계)	기투자 (a)	2026		2027 이후
			계획(b)	확보	계획(c)
계	558	426	88	88	44
국 비	0	0	0	0	0
도 비	0	0	0	0	0
시 비	558	426	88	88	44
민간자본	0	0	0	0	0

□ 연차별 이행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계	임기내 목표					임기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자원회수시설이전팀 구성			구성					
입지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착수		완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12회	10회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구성 및 운영
입지 선정								입지 선정
사업추진율(누적값)	%		20	20	40	80	90	100

※ 분과위원회 협의 및 방침결재를 받아 지표변경

□ 추진실적

○ 자원회수시설이전팀 구성(완료)

- 시설 이전 조직 보강(2023. 3. 31.)
  - 자원회수시설이전TF팀 → 이전팀 직제 승인

○ 입지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추진중)

- 입지선정계획 공고 및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3차례, 2023. 8. / 2023. 10. / 2024. 1.)
- 입지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진행
  - 입찰 공고(5차례, 2023. 9. ~ 2024. 2.)
  - 사전조사 용역 착수(2024. 3. 20.)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12회

- 보도자료 배포 1회(2025.2.17.)
- 자원회수시설 디자인 구상 및 조감도 제작 3회(2025.4.~2025.8.)
- 홍보 영상 제작 3회(2025. 3. ~ 8.)
- 언론사 기고 1회(2025.7.3.)
- 모범통장 타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견학 1회(2025.06.12.)
- 시정소식지(와글와글 수원) 홍보 3회(2025. 7. ~ 10.)
- 청소 담당 공직자 타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견학 1회(2025.11.21.)

□ 「2026 새로운수원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 검토 의견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 주요내용 - 소각용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증대로 소각시설 최소화방안 마련필요 - 분산배치 및 자원으로 생활에 에너지공급원이라는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필요 - 민선8기 행정적절차로 이전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음을 데이터를 마련하여 향후 이전을 이행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바람	• 반영여부 : 반영 • 검토의견 -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을 통한 소각시설 최소화 -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 - 갈등요소 큰 사업일수록 입지선정 절차 중요 최근 타지자체 성급한 후보지 공표로 사업 물거품, 충분한 검증을 마친 뒤 8월 후보지 공표 • 추진실적 및 계획 - 생활쓰레기 감량평가단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 홍보영상 제작 및 선진지 견학 추진 -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시 대규모 반발 예상

•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시설복합화 등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 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주력

□ 향후추진 계획

○ 영통지역 주민대표 등과 자원회수시설 현안 지속적 소통

○ 시설 이전 공감대 확산 위한 대시민 집중 홍보 : 시 · 구 · 동 연계 추진

□ 사업 홍보실적

연합뉴스 2025년 02월 17일 (월) 사회

2032년 완공 수원 자원회수시설 설계 변경… 설비 지하화

상부 공간엔 다목적 체육관 등 편익시설 조성 계획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노후화로 인해 다른 곳에 새로 짓기로 한 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설계를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아이디어 조감도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자원회수시설 이전 입지 선정 등 사전조사 용역설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설계 변경으로 추가된 내용은 폐기물 처리설비 지하화와 상부 공간 조성 등 시설 복합화 계획, 다목적 체육관 등 편익 시설 조성안 수립, 분야별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이다.

자원회수시설 상부 공간의 각종 편익시설의 유형과 규모는 추후 공모·설문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다.

설계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3월 예정이던 용역 완료 시기는 올해 12월로 9개월 연장됐다.

뉴스1 2025년 02월 17일 (월) 종합

수원 새 자원회수시설은 '주민 친화형'으로…" 지하화 및 편익시설 설치"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아이디어 조감도.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7/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시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친화 방식으로 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구상을 추가해 현재 진행 중인 '자원회수시설 이전 입지 선정 등 사전 조사 용역' 설계를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에 따른 △폐기물 처리설비 지하화 및 상부 공간 조성 등 시설 복합화 계획 △다목적 체육관 등 주민 편익 시설 조성안 수립 △분야별 전문가 자문 확대 등 과업을 감안, 당초 3월로 예정했던 용역 완료 시기를 12월로 9개월 미뤘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해당 시설의 체감형 혜택을 늘려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설 명칭 역시 시민 공모를 거쳐 친환경·편익·안전 등 특성을 포괄하도록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 보도자료 배포(2025.02.17.)

경기일보
2025년 07월 03일 (목)
오피니언 18면

기고

신뢰 위에 피어날 자원회수시설을 꿈꾼다

권혁주
수원특례시 환경국장

보고 듣는 대로 믿기 힘든 세상이다. 잘 믿으면 순진하다는 핀잔을 듣고 의심하고 따져야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지 않으니 불신의 시대라는 냉소도 지나치지 않은 듯싶다. 그저 믿는 게 더 이상 미덕은 아닌가 보다.

행정기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지 않다. 관에서 하는 얘기라며 일단 믿어주던 것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누굴 탓하랴. 필자 역시 30년 공복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5년 전 영동에 세워진 것을 없애고 자리를 옮겨 새로 짓는 일이다. 동네 어귀에 쓰레기 소각장을 품고 오랜 세월 살아온 주민들의 숙원이자 수원시 환경 책임자로서 핵심 과업이다.

쉽지 않다. 4천억원이 드는 대사업이다. 여건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할지 모른다. 주민 동의, 부처 협의, 첩첩한 행정 절차에 공사까지, 착착 진행돼도 얼마나 걸릴지 예단하기 어렵다. 가장 큰 난관은 5만4천㎡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지 확보다. 행궁 광장의 4배다. 삶터가 오밀조밀한 대도시에 그만한 땅이 뚝딱 생기겠나. 주거지와 까마득히 멀어야 한다는 꼬리표마저 달고 나면 적정 부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3년부터 후보지를 세 차례 공개 모집했으나 관심 두는 이는 없었다. 사람 사는 곳에 쓰레기는 괜언일지언정 '내 집 앞 소각장'은 반길 리 없으니 예견된 결과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존재한다. 불신이다. 쓰레기를 연료로 열·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뜻에서 자원회수시설이라 이름 붙인 지 사반세기이건만 대다수에겐 여전히 소각장일 뿐이다. 굴뚝 연기가 수증기라 해도, 다이옥신이 기준치 80분의 1에 불과하다 해도, 배출성분을 날날이 공개해도 의심의 눈초리는 가실 줄 모른다. 켜켜이 쌓여온 불신, 그로부터 비롯된 무조건적 반대를 일거에 해소할 묘안은 없다. 발에 땀이 나도록 시민들을 찾아뵙고 차원이 다른 자원회수시설의 진면목으로 한 줌 한 줌 신뢰를 쌓아가는 수밖에.

새로운 땅에 피어날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청사진은 '환영받는 시설'이다. 처리 설비를 지하로 감쪽같이 내려 오염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불허하고, 그 위는 언제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채울 계획이다. 숲과 정원이 마음까지 어루만질 힐링 센터라면 수영장·체육관·온실정원·공연장·전시관이 어우러진 문화체육복합공간도 매력적이다. 온 가족의 행복 발원지가 될 수원시 유일의 테마·워터파크는 또 어떤가.

결정은 시민의 몫이다. 찾아가는 설명회, 토론회, 새빛톡톡·SNS 설문과 아이디어 공모까지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새겨들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세상이 부러워할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언론사 기고(2025.7.3.)

벤치마킹(2025. 6. 12.)

시정소식지 와글와글(2025. 7월호)	시정소식지 와글와글(2025. 8월호)